

데스크

송세준 산업팀장



○...공포소설의 가장 스티븐 킹이 쓴 중편소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원작으로 한 영화 '쇼생크 탈출'(1995년)은 길들여짐과 자유, 그리고 희망을 얘기하는 명작이다. 희망은 의지와 간절함을 만나 비로소 꽃을 피운다.

탈출에 성공한 앤디 듀프레인은 레드에게 남긴 편지에서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제일 좋은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오랜 길들여짐에 삶을 포기하려던 레드는 앤디를 만나기 위해 국경을 넘고 끝내 친구와 뜨겁게 포옹한다.

새해 단상(斷想)

○...다시 새해다. 흔히 희망차다고 불리는 그 새해다.

확실한 것 한 가지, 시간은 나이와 다르게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해는 확실히 무언가를 꿈틀대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연초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불비는 아학원과 헬스장, 금연클리닉만 봐도 그렇다. 외국어를 배우고 다이어트를 하고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굳은 결심으로 아침마다 운동한다. 설령 작심삼일에 그칠지라도 문제될 건 없다. 소박한 꿈도 위대할 수 있으므로.

○...역동적인 것도 좋지만 새해는 무엇보다 '희망'을 말할 수 있어서 맘에 든다.

다시 시간의 출발선을 마주한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거리낌 없이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각자 마음 속 작은 희망들이 마침내 조우하는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흔히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고 한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전달된다. 촘스럽고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 가까이 행복을 빌어주는 새해 덕담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년을 소망한다.

시공기업에 유익한 TIP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지난 2017년 12월 29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①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확대 ②상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③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확대는 기술자 입·퇴사 신고 시 적용하던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을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 시에도 소속 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업계에 페이퍼컴퍼니 또는 기술능력 미보유업체의 진입·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며,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일원화해 상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임에도 그 이전에 협회에 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또 업계의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 관련 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첨제 및 영점정지가 처벌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거짓실적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별개로 부정당첨제, 영점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강화했습니다.

○...이외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법령제도에 게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호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 팀장

금요일 아침



반극동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전기차장

내 철도인생은 감사와 행복열차였다.

"성명 반극동 전기기사원시보에 임함, 영주지방 철도청 근무를 명함. 1982. 2. 26. 철도청장" 졸업식 날이 임용장을 받고 청량리역에서 영주행 열차를 탄 것이 나의 첫 직장생활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철도가 마지막 직장이 돼 이달로 35년 10개월이 됐다. 엄청 긴 세월인 듯하는데 되돌아보니 짧은 여행이었다. 공교롭게도 내가 철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신규사원 605명이 발령을 받았다. 마침 지난해 5월에 35년 직장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떠날 내 책이 있어 출판사의 협조로 한 권씩 전해 주었다. 추가로 인쇄한 책이 다 팔리지 않고 남아 있어 그 재고를 줄여주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했다.

스무살 시절 모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서사원이 당첨된 일이 있다. '여행은 인생이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인생이 여행이었다.' 직장생활 36년도 되돌아보니 즐거운 여행이었다. 낯선 곳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함께 느꼈던 여행은 늘 실례는 기분으로 떠났다. 새로운 사람과 익숙지 않은 지역을 만나고 배웠던 여행. 직장에서 그 연속이 아니었던가?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탔던 순간

아름다운 마무리

들, 늘 목적지를 향해 갔고 그곳은 잠시 안락했다. 그러나 기진 입시 거처일 뿐 최종 목적지는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것. 내 직장생활 마지막 길도 출발전 집으로 오는 길이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을 늘 후회하지만 난 철도 36년은 후회하지 않는다. 현재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 36년간의 결과다. 다시 되돌아가면 지겹고 흥미 없지 않은가? 차라리 지난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애쓴 내 자신에게 박수를 쳐 본다. 다만 뜻하지 않은 의도로 내 옆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 용서는 상처자의 이해로 마무리 짓고 싶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다. "아직 5개월이 남았는데 왜 나가려고 합니까?" 그대답을 했다. "그건 말야, 연애할 때 상대에게 퇴짜 맞을 기미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차 버리면 되는 것과 같아"라고. 나의 자존심,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은퇴예정자 교육을 다녀왔더니 다음 퇴직 차례인 동료가 물었다. "반 처장, 그 교육 유익했어? 뭐 배울 게 있었어?" 그 물음에 내가 답했다. "응, 마지막 감사사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은퇴나이가 평균 52~53세인데 그보다 5~6여년이나 더 일하고 있으니 그것 말고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자녀교육도 다 시켰고, 빠른 분은 혼자까지 치르시고 연금과 퇴직금까지 있으시니 재무관리는 더 이상 알려드릴 것이 없어요. 지금 떠나도 행복하시니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감만 가지시면 됩니다. 자신감!' 그

말이 이번 교육에서 제일 큰 배움이었지."

사무실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고 기뻐했다.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 책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 물음 '나는 누군가?' 하고 묻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고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또 시작과 끝은 항상 한 묶음이다. 부산역이 경부선 종착역이자 출발역인 것처럼 철도 36년 종착은 다시 시작하는 서던에이지의 시점이다. 은퇴 단어가 retire(퇴직)와 동차에 타이어를 바꾸면 다시 잘 달릴 수 있다. 예전에 본 '철도원' 영화대사가 생각난다. "죽은 딸도 낫발을 흔들면서 맞이하는군요. 아쩔 수 없잖아요. 내가 낫발을 안 흔들면 기차가 제때 안 가는 걸", "우리 아버지 말씀만 믿고 살았지. 끊임없이 이어진 레일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철도원으로서 사명을 다 하려고 했어. 후회는 없다." 이대사처럼 36년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회는 없다. 끊임없이 이어진 레일 위를 달렸던 내 철도 인생은 감사와 행복열차였다.

기자의 눈



조재학 기자
zjh@

지난 10일 대통령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각본 없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자리를 지명했고, 기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었다. 질문할 기회를 얻기 위해 양손을 들거나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1시간 남게 이어진 기자회견 내내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정부에서 미리 질문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것과 단적으로 비교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신년기자회견은 질문지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고, 실

제로 유출된 질문지와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되면서 '짜고 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기자들은 질문자가 미리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같이 손을 들어주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불과 2년 만에 바뀐 대통령 기자회견장의 모습은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

하게 추진 중이다. 특히 원전의 경우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재계된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비중 축소로 결정됐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부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에너지 분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탈원전·탈석탄'을 강력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질문 기회를 드리지 못한 분들께 죄송하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질문을 못 한 분에게 기회를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3차 에너지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원자력계에 질문할 기회를 쥐어 하지 않을까.

전기신문 electimes.com

1964년 5월 18일 창간 (주3회) 등록 서울, 가50118	
사중·발행인 이형주	편집인 이용우
주 소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2길 8 (동촌동) (우)07664	대표전화 (02)2168-1300
사 장 실 (02) 2168-1301-2	광고마케팅팀 (02) 2168-1351-7
부 사 장 실 (02) 2168-1303-4	FAX 2168-1349
편집팀 (02) 2168-1312-5	경영지원팀 (02) 2168-1306-8
에너지 Biz팀 (02) 2168-1320-4	FAX 2168-1349
산업팀 (02) 2168-1330-4	사 업 팀 (02) 2168-1360-1
디지털뉴스팀 (02) 2168-1340-2	FAX 2168-1349
FAX 2168-1349	
본사 외국계회사 중국전력(중국), 베트남전기(베트남) 자회사(미국), 홍콩 E&EN 자회사	
매주 월·수·금요일 발행 구독료 월 15,000원 원 180,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 산업규격 KS표시 허가업체
ISO 9001 인증업체

한국, 일본 동시 판매
실용신안 제 20-0410917호

친환경제품 (RoHS대응품) 공급 가능

후강 전선관용 나사없는 커플링

인건비 절감, 작업시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국내최초 AP 커플링

인건비 걱정 NO! 작업시간 단축 YES!

박스류

비방수

방수

프레시블류

콘넥타류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류

비방수

방수

비방수

방수

노출배관용

재고보유

SUS 콘넥타 (#16~#54, 박스용, 파이프용)

노출배관용 현장적용사진

신제품

콘크리트 매입 배관용

조립순서

배관 파이프 → 너트 → 고무패킹 → AP 커플링 → 고무패킹 → 너트

콘크리트 매입배관용 현장적용사진

나사없는 스틸 전선관 및 노말밴드 제작 판매

- 전선관에 나사를 대지 않고 조립
- 휴대용 드라이버나 스패너등으로 간편하게 분해, 조립
- 아연 합금 제품으로 전기적 접촉성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
- 미숙련자도 사용이 가능하며, 시공이 빠르고 시공품질 향상
- SUS(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와셔와 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후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재활용 가능
- 고재질과 기밀구조의 패킹 사용으로 완벽한 방수성능을 가지고 있어 외부 노출배관 가능

전기배관자재 전문생산업체

대승공업(주)

www.daesng.co.kr

·문의전화 [서울영업부] TEL : 02)742-0973

·[본사/공장]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남리 441-3

·제1공장 TEL : 031)863-8620

·제2공장 TEL : 031)829-6900

FAX : 031)836-6913